

‘행복·나눔 콘서트’ 개최

호원대 K-POP학과, 군산시민·청소년들 무료입장
내달 1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극장서 ... 소정 기념품 제공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개교 42주년을 맞아 2019학년도에 신설한 K-POP학과 학생들과 함께 군산시민들을 위해 오는 9월 1일 ‘군산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군산시민 및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K-POP)공연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 참여를 제공함으로써 마음치유 및 학업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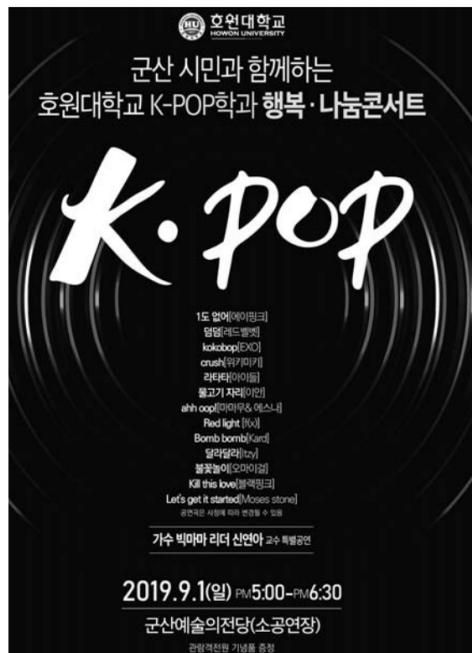
군산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9월 1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호원대학교 K-POP학과 학생들 및 K-POP학과 학과장 신연아(가수 빅마마 리더) 교수가 특별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입장으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 공연을 관람한 관람객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강희성 총장은 “K-POP학과 행복·나눔 공연을 통해 군산시 및 지역사회의 상생 실천을 통해 앞으로 이웃과 사회에 희망과 도움을 주는 대학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다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취업률이 우수한 호원대학교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총 1174명 중 81.7%인 959명을 모집한다. 이번 수시모집의 특징은 산업대학으로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모든 전형에서 계열 구분 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고, 전 모집단위 수능 최저적용을 하지 않는다. /장은성 기자



진안경찰, 다기능·다목적 대테러 예방 교육 가져

진안경찰서(서장 이연재)는 27~28일 이틀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기능·다목적 대테러 예방 순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국내·외 현안문제(총선, 대북, 대일 관계 등에 대한 사회 불만자 돌출행동이나 일부 소외된 개인들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나 증오의 표출 등의 위협요인으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을 것에 대비 이루어졌다.

또한 급증하는 불법체류자중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해 목적으로 혹은 테러 조장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잠입할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찰, 형사, 교통 등 외근경찰관이 기본업무 수행하면서 ‘테러방지·안전사고대비·범죄예방’을 병행, 다기능·다목적 순찰을 통해 평상시 예방 활동으로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연재 서장은 “테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므로 경찰은 항상 대비 태세를 갖추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남원경찰 동통지구대, 자율방범대와 치안활동 펼쳐

남원경찰서(서장 함원배) 동통지구대는 지난 28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동통 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과 주민들의 체감치안 확보를 위한 야간 합동 근무를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비롯해 원룸집 집지역과 여성안심귀갓길 등 야간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합동순찰 하고, 청소년 비행 및 각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펼쳤다.

이동권 동통지구대장은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등의 협력단체와 협력해 월 1회 이상 합동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으로 치안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교월동 복지기동대, 독거노인 위한 공사 수리

김제시 교월동복지기동대(대장 최창인)는 27일 취약계층 10세대를 방문,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아름다운 재능 기부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기동대는 5년 동안 공기였던 집으로 이사하고 고장난 보일러를 방치한 채 단열이 되지 않는 집에서 생활하던 독거노인세대를 찾아 보일러를 새겼으며 교체함은 물론 낡은 주방·욕실 수전을 바꾸는 등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또한 고장나고 오래된 형광등 및 침침한 방에서 지내던 세대를 찾아 환한 LED 등으로 교체하고 노후화된 전선을 개선하는 등 밝은 빛을 선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농기센터, 찾아가는 농기계 안전교육 진행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최근 송동면의 복숭아 재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차 이론교육 2차 현장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현장교육은 캐빈형SS방제기, 승용제초기, 고소작업차, 전동전정가위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안전수칙을 전달했다.

특히, 전동전정가위 경우 손가락 절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전시된 농기계를 농업인이 직접 시운전해 보는 교육을 실시해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평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결론

▲박종근(박기성·김남순씨 사남)·김희은(김창기 전 전북유형음식연합회 회장·김미에서 장녀)양= 일시: 9월 7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전주 노블레스 웨딩홀 2층(사파이어 홀)



전북은행, 완주군 구이면에 'JB희망의 공부방 제90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8일 완주군 구이면에 위치한 모악엘피스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90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 김용우 완주군청지점장, 김경진 사회공헌부장, 완주군 정철우 부군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동의 사무처장, 모악엘피스지역아동센터 정양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모악엘피스지역아동센터는 2005년부터 지역일대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체험, 공동체 활동, 정서적지원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나, 센터 개소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환경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색상으로 도배를 하고, 낡고 오래된 책상, 의자, 책장 등을 새롭게 지원했다. 또한,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을 새로운 공부방으로 조성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전북은행 완주군청지점(지점장 김용우)에서는 방과 후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기로 했다.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은 “전북은행의 정성과 관심으로 조성된 공부방에서 아동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